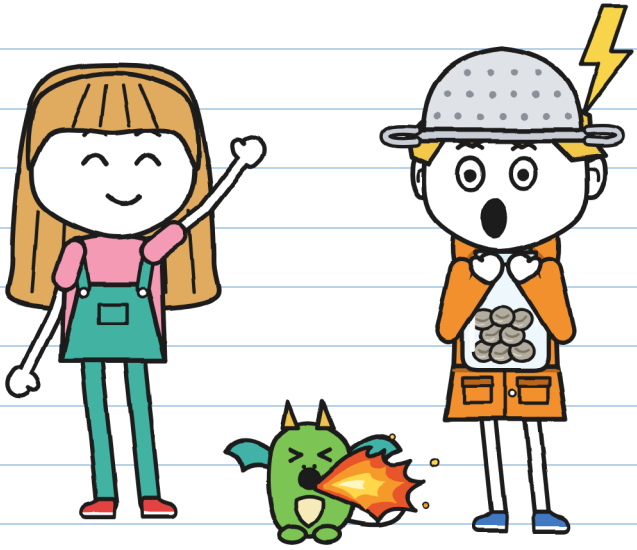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구너의 공책)

사이즈 M
중급 · 9+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M · 중급 · 9+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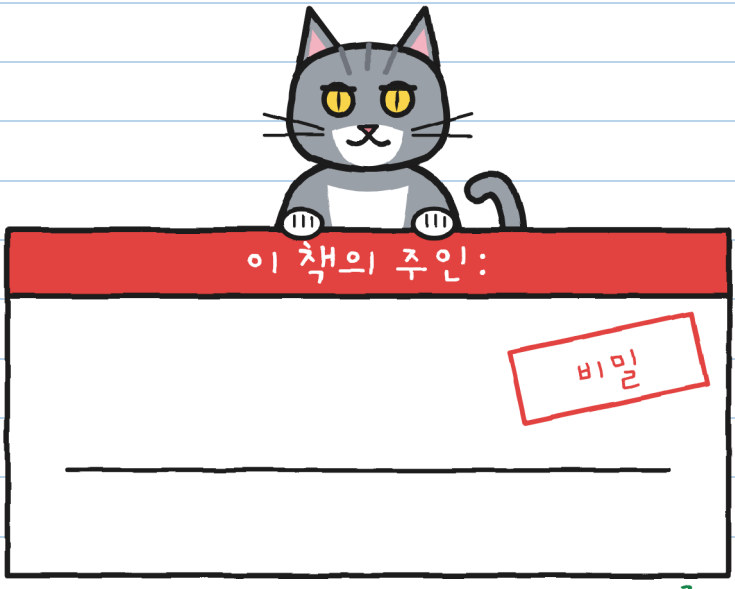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천둥은 없다. —J.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너는 따라 하지 마. 몇 쪽에 걸쳐 이어지면 어디부터와 어디까지라고 적혀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76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폭풍 사냥꾼(그런 셈이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홀리타. 번개와 천둥 사이의 초를 센다.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부스러기. 아기 용. 구니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뭐든.



토요.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플로라 아줌마. 운하길 9번지의 정원사. 돌멩이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네 옆 용의 집에서 용을 돌본다. 부스러기는 아줌마와 함께 산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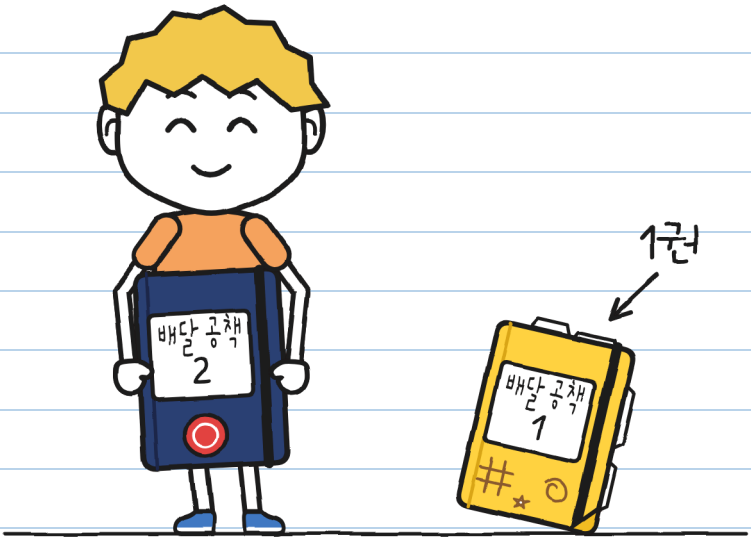


R.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배달 공책 2
주인 : 구니

공식.

공식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J.



공책 1권은 다 썼다. 꽉 찼다. 이건 가게 주인 마라 아줌마가 줬다. 표지에 도장이 찍혀 있다. 공식 공책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된다고 한다. 두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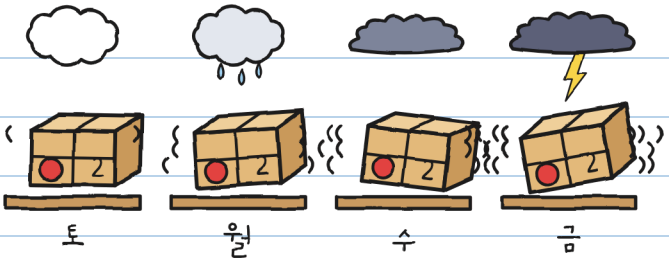
제1장

폭풍 사냥꾼

마라아줌마 가게에는 덜덜 떠는 택배가 하나 있다. 지난 토요일부터 날마다 조금씩 더 심해진다.
나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훌리타와 내가 마지막으로 배달한 택배는 알이었다.
이제 그 알은 아기 용 부스러기가 되어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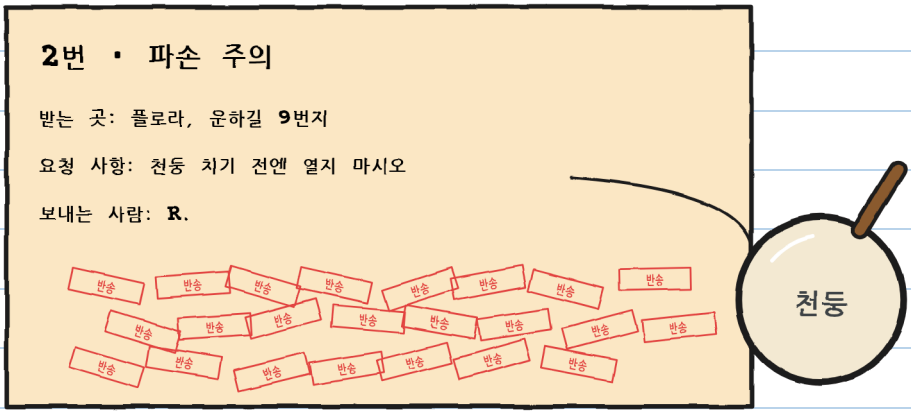
우리 집 맞은편 가게에는 돌아온 택배가 열아홉 개 남아 있다. 덜덜 떠는 택배는 다른 택배들보다 마음이 급하다.

떨림 계
(2번 택배)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토요일 저녁 6시에 폭풍이 온대. 일기예보를 여섯 번이나 확인했어. —J.

돌아온 택배를 받은 사람은 라벨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해야 한다. 훌리타의 초록색 매직펜 같은 것 말이다.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이 택배를 전부 보내는 사람은 똑같다. R.이다.



2번 택배에는 '반송'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었다.

스물셋. 두 번 세어 봤어. —J.

"내가 스물세 번 배달했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 한 건 한 번도 없었어."

토요일 10시에 마라아줌마가 2번 택배를 들고 계산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뇨도 와 있었다. 토요일마다 우리 셋은 가게에서 벌을 받는다. 1번 택배를 허락 없이 배달했기 때문이다.

"이건 너희가 배달해."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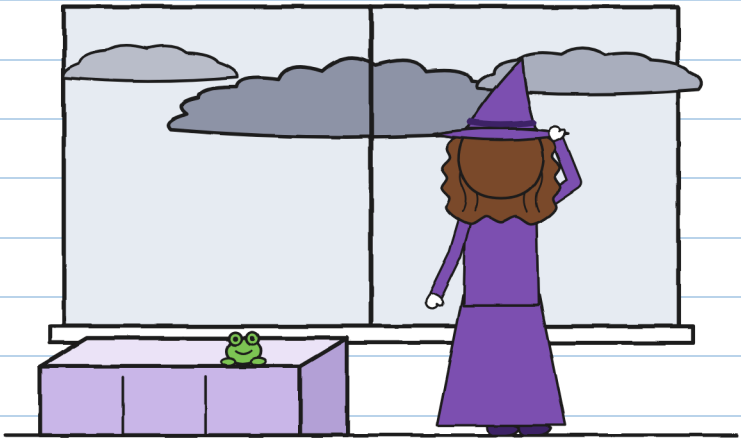


훌리타가 높이 뛰어서 '남은 택배 19' 팻말에 닿을 뻔했다.

마라 아줌마는 조건을 세 가지 걸고 손가락을 꼽았다:

1. 5시에 폭풍이 오기 전에 출발해.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플로라 아줌마네 있어.
2. 너희 가족과 플로라 아줌마는 이미 알고 있어.
3. 규칙은 라벨 그대로야. 천둥 치기 전에는 열지 마. 머리 위 천둥만 돼. 멀리서 치는 건 안 돼.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마라 아줌마는 말하고 진열창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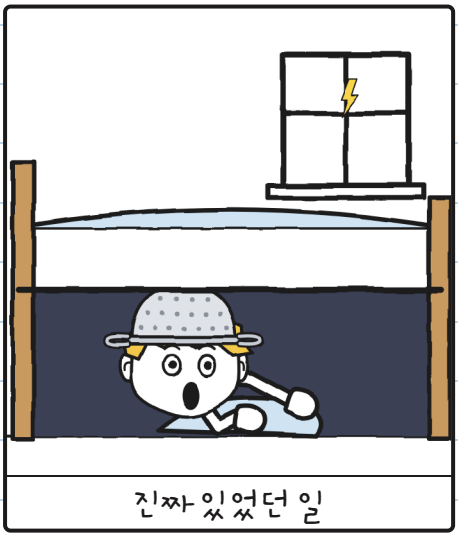
무슨 일? —J.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넌 폭풍 좋아해?"

그래서 그런 눈으로 쳐다볼 때 하는 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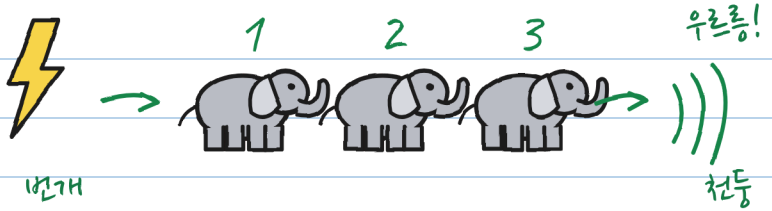
"엄청 좋아해. 예전 동네에서는 전문 폭풍 사냥꾼이었어."





침대 밑 전문가. —J.

훌리타가 내 공책에다 폭풍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늘 그렇듯 허락도 없이: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셋...

코끼리 1마리 = 1초

코끼리 3마리 = 1킬로미터 (대충)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게 라벨에 쓰인 천둥이야.
멀리서 치는 천둥은 택배를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안전한 곳으로!

아는 건 덜 무서워. —J.

나는 셀 필요가 없었다. 폭풍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 두었다.

토쇼가 내 어깨 너머로 라벨을 읽었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토쇼는 가방의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아직 폭풍은 안 쳤잖아." 훌리타가 말했다.
토쇼는 다시 읽었다. '아직'이란 말은 없었다.



작은 글씨가 너무 작았어. —J.

그래서 토쇼도 우리와 함께 갔다.
5시에 나는 비옷을 가지러 집에 갔다.
"주황색 비옷 입어." 우리 엄마가 말했다. "정말 가니? 넌 천둥 칠 때…"
"엄마, 다녀올게!"

넌 천둥이 칠 때면… '뭐?! —J.

하늘이 벌써 새까만데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다. 밤에는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들어 올린다. 다리 한가운데서 훌리타는 아주 진지하게 물에게 손을 흔들었다. 운하와 훌리타는 사이가 안 좋다.



아주 멀리서 하늘이 번쩍했다. 훌리타는 천둥이 칠 때까지 코끼리를 서른 마리 셌다.

우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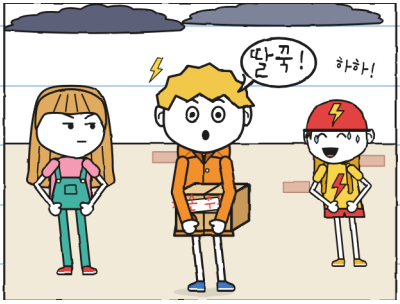
"저 번개까지 10킬로미터쯤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일기예보대로라면 폭풍은 6시쯤 올 거야."

"천둥이 쳤다!" 토뇨가 말했다. "이제 열어?"

"저건 택배를 여는 천둥이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라벨에 쓰인 천둥은 번개와 동시에 치는 천둥, 코끼리 0마리야. 하지만 소리가 들리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운하길까지 달렸다. 나는 귀가 먹은 척했다.

"방금 딸꾹질이야?" 훌리타가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딸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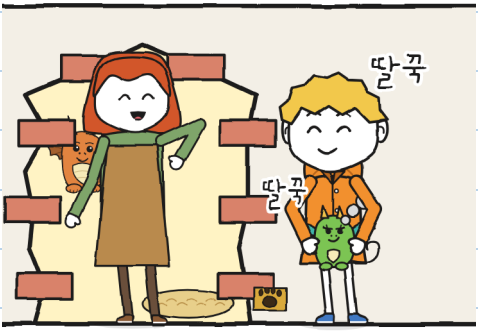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천둥이 칠 때만 그렇다. 천둥이 칠 때마다 딸꾹질이 줄줄이 나온다. 3초에 한 번씩. 폭풍이 머리 위에 있으면 멈추지 않는다. 무서운 게 아니다. 내 몸이 묻지도 않고 하는 일이다.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용을 돌보는 베라 아줌마가 플로라 아줌마네 바로 옆 자기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부스러기는 나와 함께 산책한다.

"오늘은 플로라네 집까지만이야. 부스러기에겐 첫 폭풍이거든." 베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며 부스러기를 나에게 건넸다. "부스러기는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해. 네가 느끼는 것도. 무서워하면 잡아당기지 마. 꽉 붙잡으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담장을 세 번 두드려. 그러면 데리러 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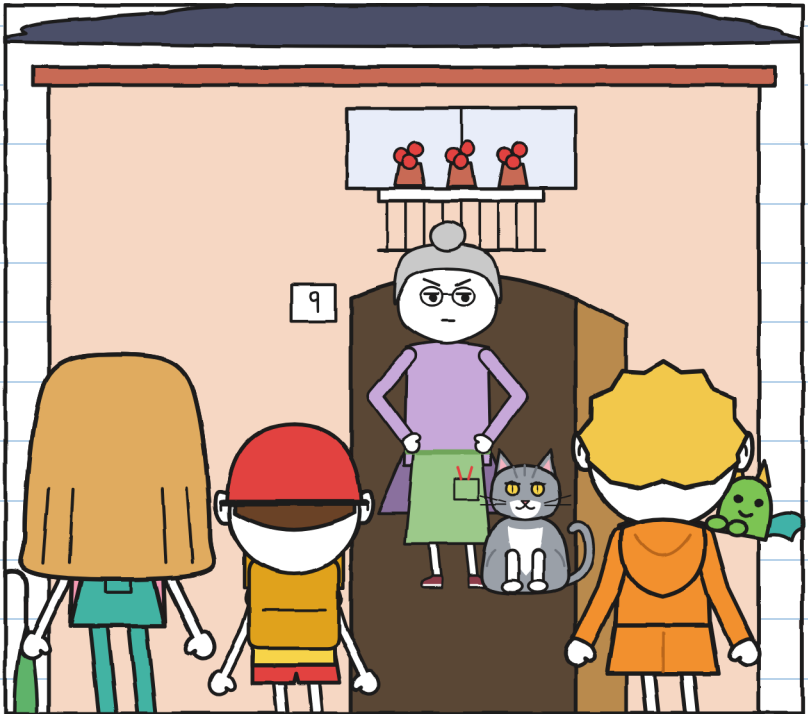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폭풍이 엄청 좋거든요."



멀리서 천둥이 쳤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하고 콧구멍으로 연기를 뿜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렴." 베라 아줌마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지지난 토요일, 우리가 벽처럼 생긴 용의 집 문을 찾고 있을 때 플로라 아줌마가 그 발코니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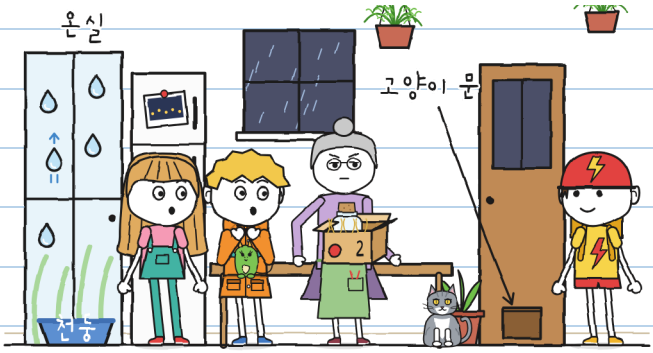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고 상자와 하늘과 부스러기를 차례로 보았다.
"베라네 아기 용이구나. 내 고사리를 그슬리지 않게 해 다오." 아줌마가 말했다. "들어오렴, 비가 온단다. 미리 말해 두는데,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제2장

천둥!

플로라 아줌마네 부엌은 식물로 가득하고 천장에도 매달려 있다. 안쪽 유리문은 온실로, 고양이 문이 달린 뒤쪽 문은 마당으로 이어진다. 토요는 비 때문에 자전거를 복도에 들여놓았다.

유리문에는 빗방울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가 유리를 타고 올라갔다.



"R.이 만든 마법 유리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내가 원할 때만 비가 들어오게 해 주지. 번개는 절대 안 들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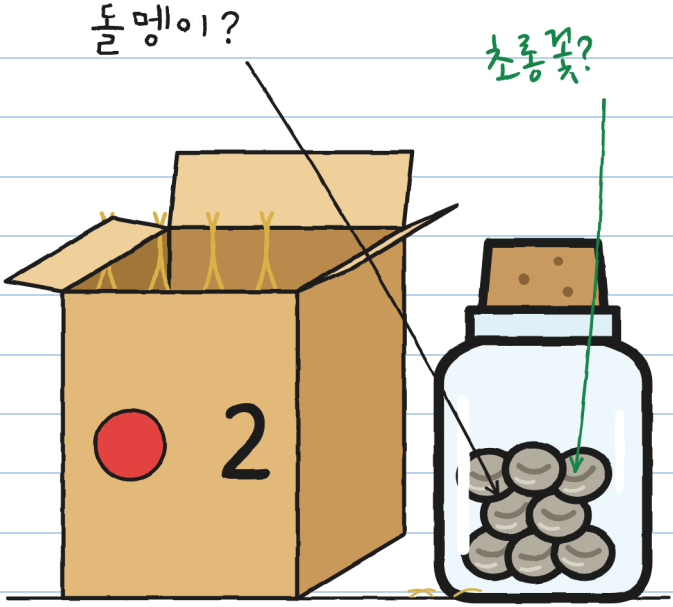
빗방울은 계속 올라갔다. 어디 가는지는 묻지 않기로 했다.

플로라 아줌마는 상자를 식탁에 놓고 묻지도 않고 열었다. 안에는 짚과 유리병이 있고, 병 속에는 회색 알갱이가 여덟 개 들어 있었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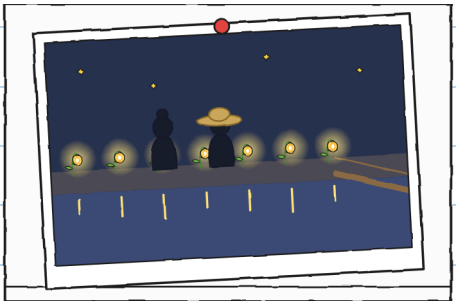
훌리타가 소리쳤다.

"난 상자를 열었지, 병을 연 게 아니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 R.이 초롱꽃을 약속해 놓고 돌멩이를 보내는 거야."



"초롱꽃이 뭐예요?" 내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가 낡은 사진을 떼어 냈다. 물가에 작은 불빛이 있는 밤의 운하 산책로였다.



"식물이란다." 플로라 아줌마가 설명했다. "번개의 빛을 품었다가 밤새도록 빛을 내지."
"R.이 심었어요?"
"R.은 깨어난 씨앗을 가져왔고 난 흙을 대줬어. 잠든 씨앗은 한 번도 못 봤단다."
"그럼 초롱꽃은요?"
"꺼졌어. R.이 오지 않게 됐지. 지금은 이런 걸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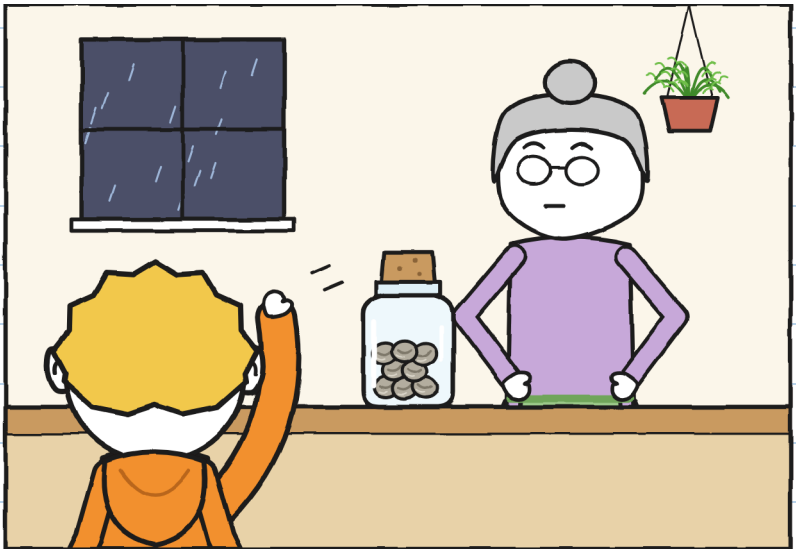
그래서 밤이면 운하가 어둡고, 널빤지 하나 걸친 널다리가 그렇게 무섭다.

무서웠지. 난 어둠 속에서 건넜는걸. —J.

"R.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늦게라도 지키지.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야. 이 병을
스물세 번 받았는데 스물세 번 모두 돌멩이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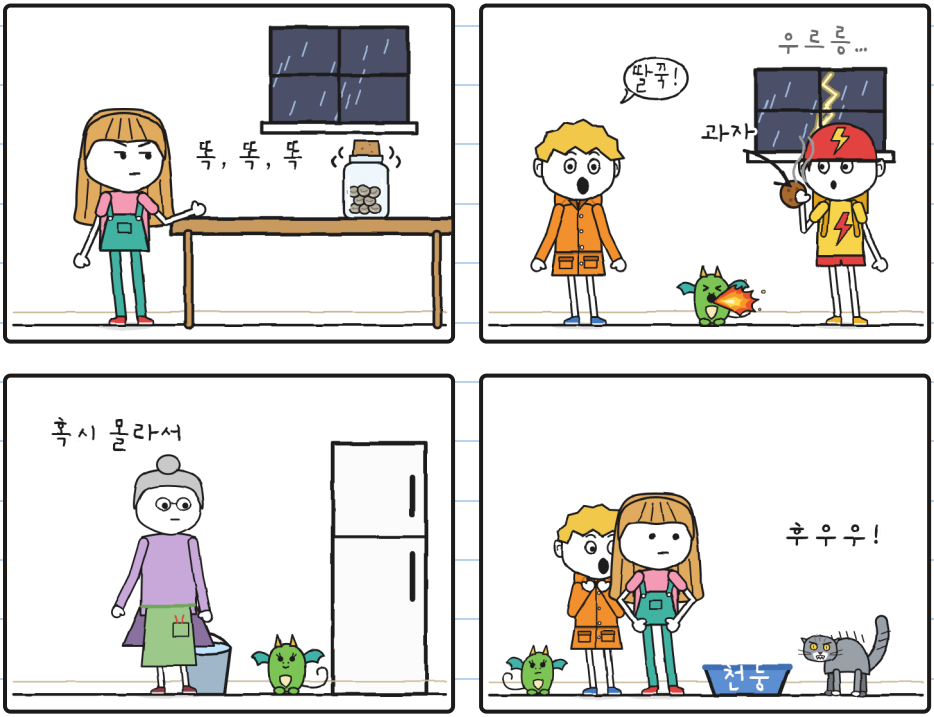
나는 라벨을 떠올렸다.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
"천둥이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 본 적은 있어요?"
내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물이 젖느냐고 물은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난 누구도 안 기다려." 아줌마가 말했다. "천둥이라도."



플로라 아줌마의 고양이는 이름이 천둥이다 (밥그릇에 이름이 적혀 있다). 회색이고, 진짜 천둥처럼 그르렁거린다.

기다리는 동안 부엌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둥에서 제일 나쁜 건 기다리는 거야. —J.

병이 점점 더 크게 달그락거렸다. 훌리타는 작은 소리로 셌다. '코끼리 열두 마리.' '아홉 마리.'
식탁 밑에서 훌리타의 발이 들썩거렸다.

"그러다 바닥에 구멍 나겠다." 내가 말했다.
"세고 있잖아."
"네 발이 너보다 더 빨리 세고 있어."
그때 부스러기가 작은 불꽃을 또 내뿜었다. 천둥은 고양이 문으로 쏜살같이 마당으로 달아났다. 플로라 아줌마가 뒷문을 열고 큰 소리로 불렀다:
"천둥아아아!"



그리고 훌리타가 병을 열었다.



"천둥이 쳤어!"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은 치지 않았다. 플로라 아줌마가 소리친 거였다.
천둥은 고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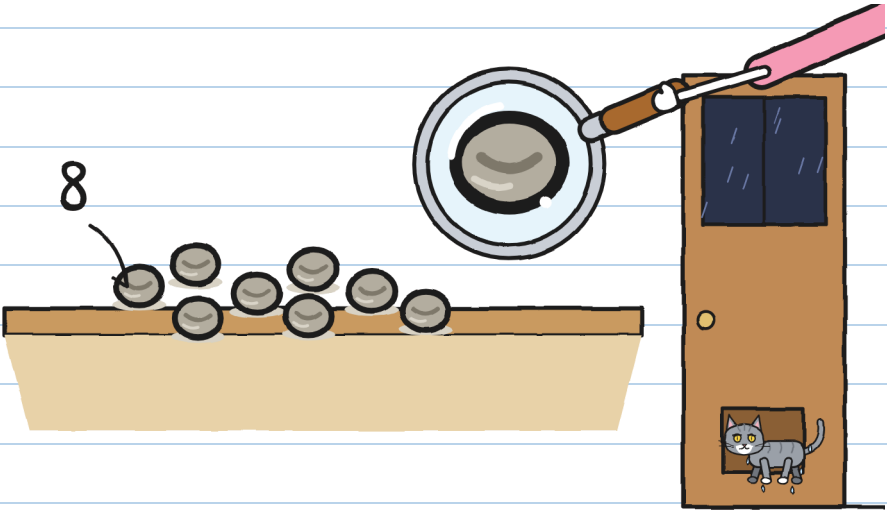
나는 천둥! 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딱 기다리던 말이었지. 고양이라고는 아무도 안 말해 줬어. —J.

이건 17쪽에 적어 두었다.

그 쪽은 나중에 읽었어. —J.

병을 열자 달그락 소리가 멎었다. 안에는 차갑고 가만히 있는 회색 알갱이 여덟 개가 있었다. 훌리타는 알갱이들을 식탁에 쏟아 돋보기로 보았다.

"줄이 하나씩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감은 눈 같아."



천둥은 흠뻑 젖어 고양이 문으로 돌아왔고, 플로라 아줌마는 문을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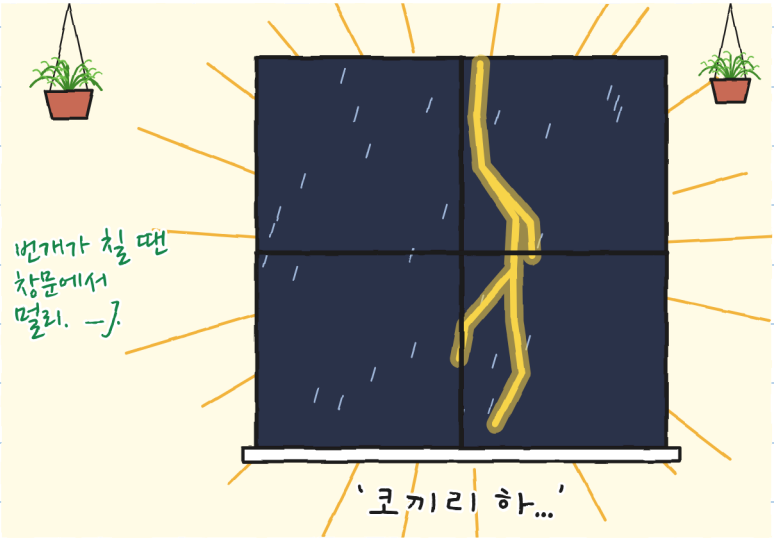
"돌멩이네. 늘 그렇듯이." 아줌마는 훌리타를 쳐다보았다.

훌리타의 얼굴이 티셔츠와 똑같은 색이 되었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이라서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덜덜 떨릴 만큼 큰 천둥이 깨워 줄지도 몰라요."

플로라 아줌마는 한참 말이 없었다.
"씨앗이라면 증명해 보라지."

밖은 거의 밤이었다. 겨우 6시였다.
번개. 훌리타가 세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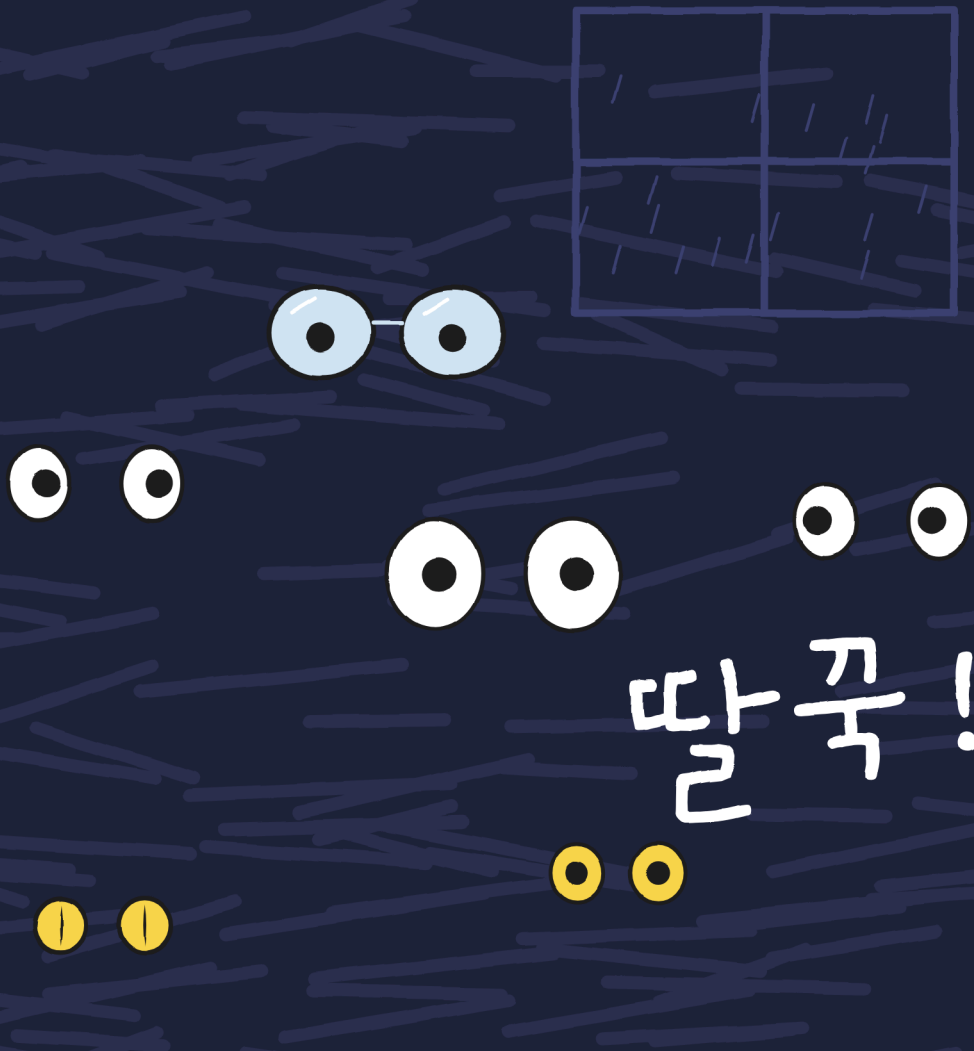


그리고 그때 진짜가 왔다.



천둥이 번개와 함께 왔다. 폭풍이 머리 위에 있었다.
식탁과 컵과 유리창이 떨렸다.

그리고 불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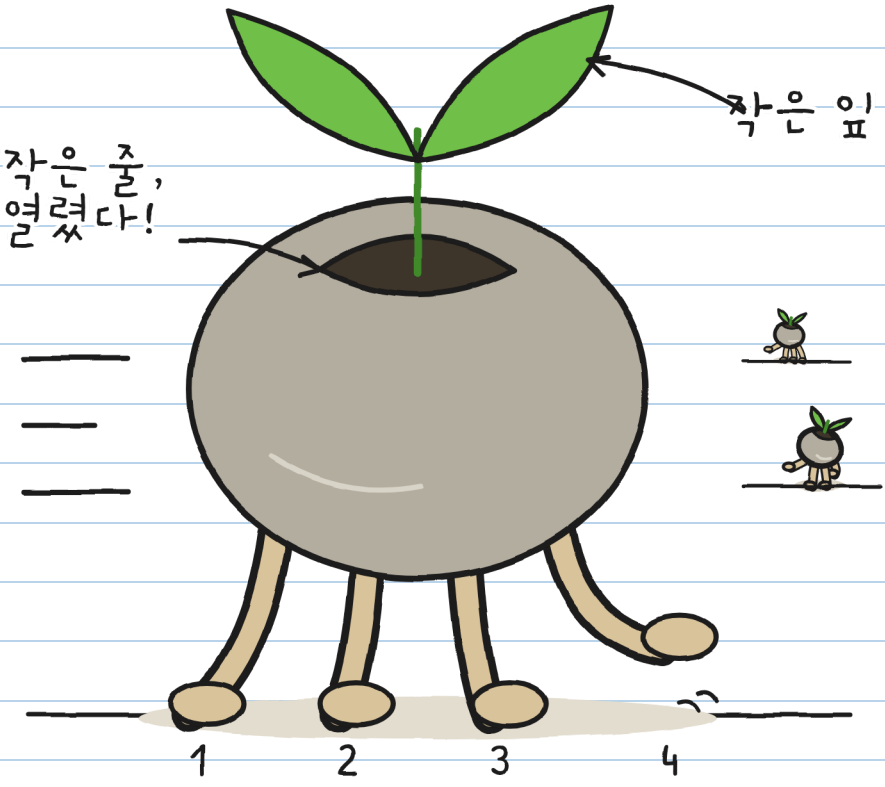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는데,
그 불꽃이 1초 동안 부엌을 환하게 비췄다.

식탁이 비어 있었다.



초롱꽃 씨앗
(깨어남)



뿌리 다리 네 개

돌멩이에 다리가 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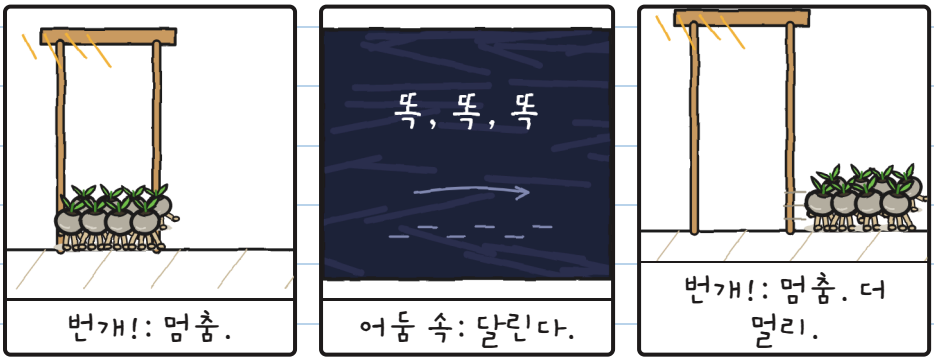
그리고 조급함. —J.

제3장

안 보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빗소리 같은 게 들렸다. 똑, 똑, 똑.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들은 더 멀리 가 있었고, 가만히, 아주 가만히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씨앗들은 빨리 달렸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멈췄고, 번개는 많이 쳤다. 나는 식탁 밑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의 체를 머리에 썼다. 우리 집에서는 천둥이 치면 하나 쓴다.



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야. 씨앗이랑. —J.

플로라 아줌마가 손전등으로 씨앗 하나를 비추자 씨앗이 멈췄다. 다른 씨앗을 비추자 첫 번째 씨앗이 달아났다.

"씨앗이야! 깨어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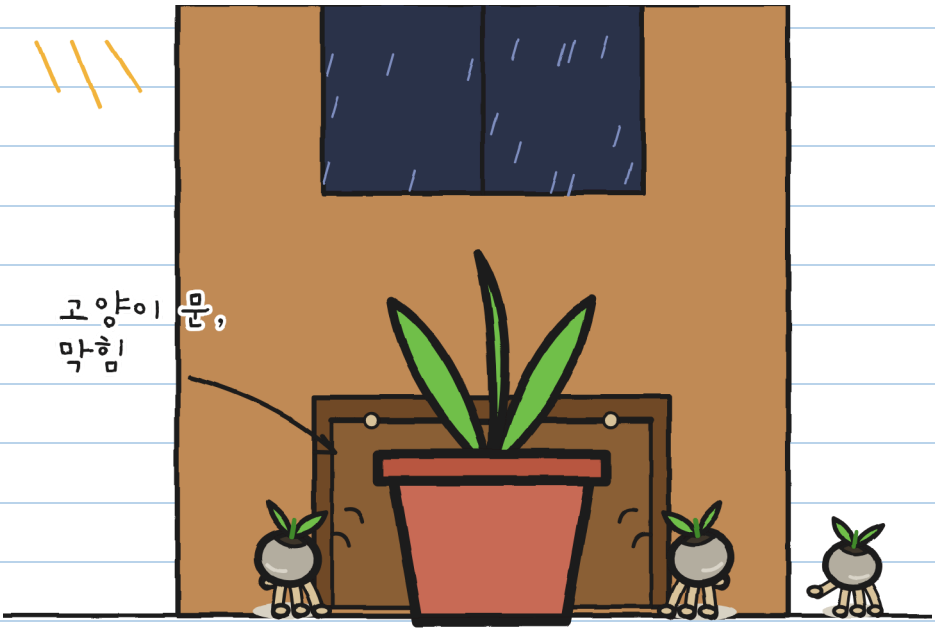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가 불빛을 치우자마자 두 번째 씨앗이 달아났다.

"손전등이 하나 더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렴. 이것밖에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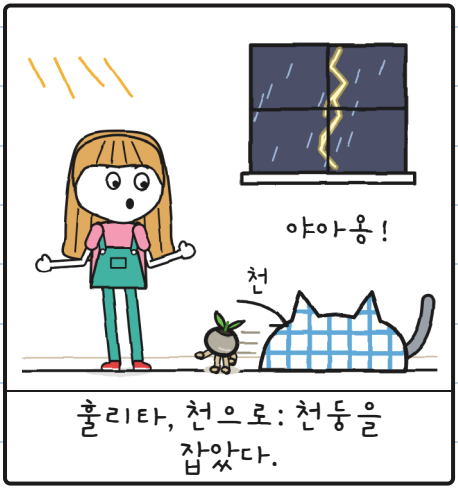
씨앗은 여덟 개, 손전등은 하나. 셈이 맞지 않았다.

씨앗은 모두 고양이 문으로 갔다.
"폭풍에 젖은 흙을 찾는 거야." 플로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화분을 문 앞에 놓았다. "집 안에는 수돗물을 준 흙뿐이야. 바깥에도 흙이 거의 없어. 판석과 좁은 길과 운하뿐이지. 나가면 빗물이 물속으로 쓸어 가 버려."



고양이 문은 막혔지만 이제 씨앗들은 부엌 곳곳에 흩어졌고, 부엌에는 숨을 곳이 백 군데나 된다.

우리는 온갖 걸 다 해봤다:



휠리타, 천으로: 천둥을 잡았다.



토뇨, 맨손으로: 천둥이 토뇨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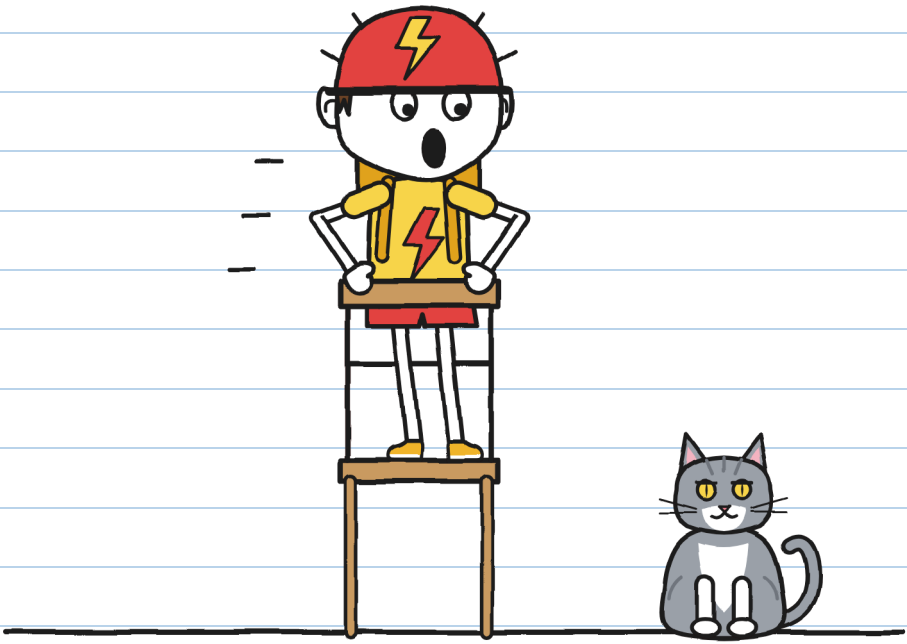
부스러기, 불꽃으로: 하나!



플로라아줌마, 손전등으로: 둘!

천둥도 씨앗을 쫓아다녔다. 천둥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보지만 우리는 못 본다.

토쇼는 폭풍이 무섭지 않다. 토쇼가 무서운 건 고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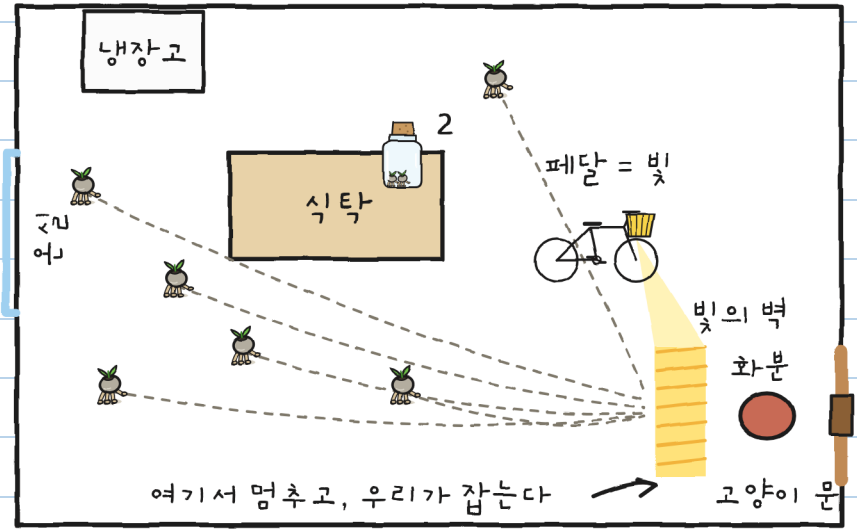
"고양이가 아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천둥이야!"

"더 나빠!"

무서운 건 둘, 이름은 하나. —J.

나는 여전히 체를 쓴 채 식탁 밑에 있었다. 거기서는 번개가 칠 때마다 바닥이 전부 보였다.

씨앗들은 흩어졌다가도 결국 고양이 문으로 돌아갔다. 같은 화분을 밀러.



나는 약도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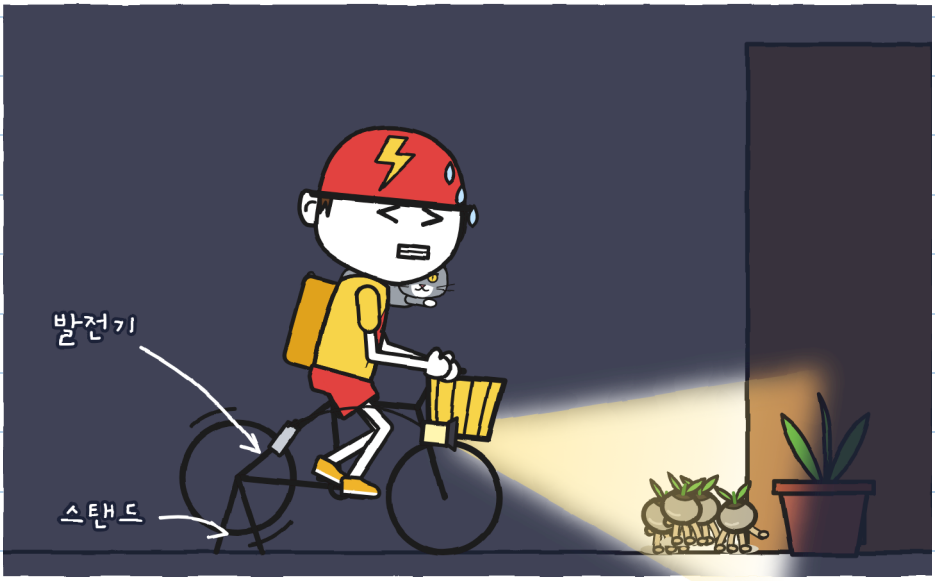
"토요, 네 자전거 전조등은 페달을 밟으면 켜지니?"

"당연하지."

"그럼 오늘은 빛을 배달하는 거야."

우리는 자전거를 스탠드에 세우고 전조등을 고양이 문 쪽으로 돌렸다. 번개배송 발전기는 뒷바퀴에 붙어 있어서, 바퀴가 돌면 불이 켜진다. 그리고 토뇨가 페달을 밟았다.

토뇨는 그렇게 열심히 밟은 적이 없었다. 특히 천둥이 위로 뛰어올랐을 때는.



드디어 번개배송이 쓸모가 있네. —J.

씨앗들은 빛에 닿으면 멈췄고, 우리는 한 개씩 잡아 병에 넣었다. 셋. 넷.

천둥이 입으로 씨앗 하나를 물었고, 플로라 아줌마가 손가락 두 개로 그걸 빼앗았다.
"다섯!" 아줌마가 말했다.



여섯.

플로라 아줌마는 한 개도 도망가지 못하게 병뚜껑을 닫고 우리를 도우려고 쪼그려 앉았다. 그때 천둥이 식탁으로 뛰어올라 병을 쓰러뜨렸다.



토쇼는 병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번개배송." 토쇼가 말했다. "1초 안에 못 하면 공짜."

하지만 이제 페달을 밟지 않아서 불이 꺼졌다.
그리고 천둥은 아무도 못 말린다. 쏜살같이 고양이 문으로 달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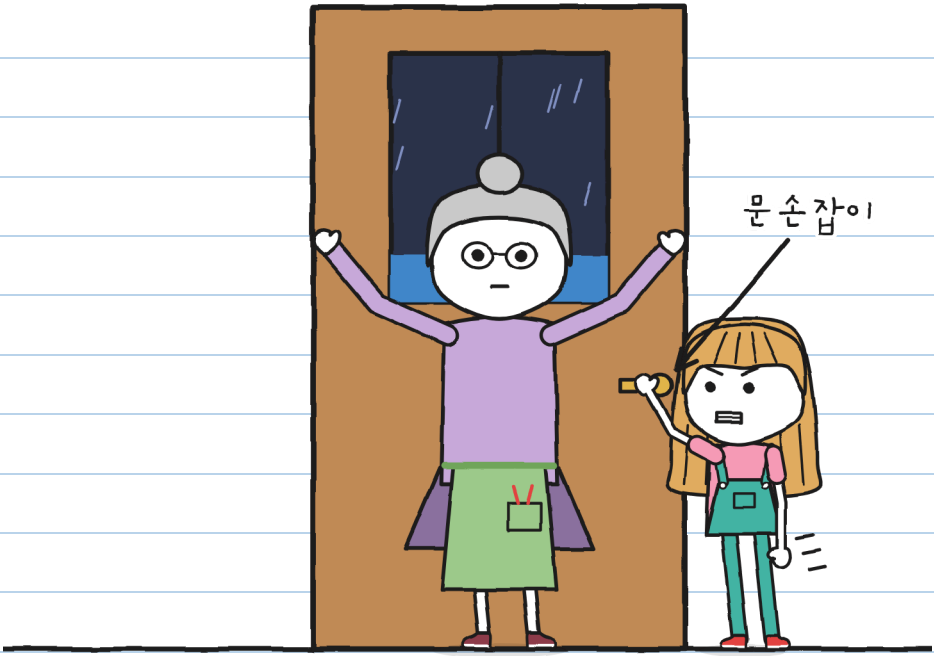
어둠 속에서: 똑, 똑, 똑. 천둥이 화분을 밀었다. 드르륵.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은 하나만 남아 있었고, 훌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여덟 번째 씨앗은 고양이 문으로 나가 버렸다.

"제가 찾아올게요!" 훌리타가 문손잡이를 잡고 말했다.
"번개가 칠 때는 아무도 못 나가." 플로라 아줌마는 문 앞에 딱 버티고 섰다. 따질 기분이 아니었다.



훌리타는 따지지 않았지만 문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잠시 뒤 고양이 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흠뻑 젖은 천둥이었다. 여덟 번째 씨앗은 없었다.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우르릉.

"둘." 훌리타가 말했다. "아직 아주 가까워."

"그럼 심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폭풍이 가기 전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온실에서요?" 훌리타가 물었다.

플로라 아줌마는 유리 위로 올라가는 빗방울을 가리켰다.

"마법은 아직 걸려 있어. 여기엔 번개가 못 들어와."



부스러기를 쳐다보며 '어둠 속에서' 하고 되풀이했다.

부스러기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딸꾹질을 했다.

제4장

딸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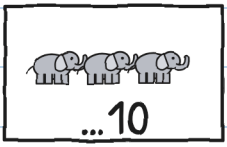
플로라아줌마는 R.이 가르쳐 준 대로 초롱꽃 심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공식 글씨로 받아 적었다:

초롱꽃 심는 법

1. 
폭풍에 젖은 흙.
(수돗물 준 흙은 안 돼.)

2. 
흙 위에서 병 열기.
(먼저 열면 도망간다.)

3. 
전부 어둠 속에서: 씨앗들이 스스로 흙 속으로 들어간다.
(네가 묻으면 싹이 안 터.)

4. 

폭풍이 가기 전에:
코끼리가 열 마리를 넘으면,
다음 폭풍 때까지 심어지지 않는다.

깨우려면 코끼리 아홉 마리. 심으려면 열 마리까지. 열한 마리가 되면 다시 잠들어. —J.

플로라 아줌마가 천장 창문의 크랭크를 돌렸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려 놓은 빗방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진짜 비가 유리를 통과했다.

비는 화단 위로 쏟아졌다. 화단은 흙이 가득한 긴 탁자였다.

"전부 화단으로. 바닥에는 한 방울도 안 돼." 플로라 아줌마가 비에게 명령했다.



이 유리는 이야기 속에만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온실에 절대 가지 마(76쪽). —J.

"폭풍에 젖은 흙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이제 전부 어둠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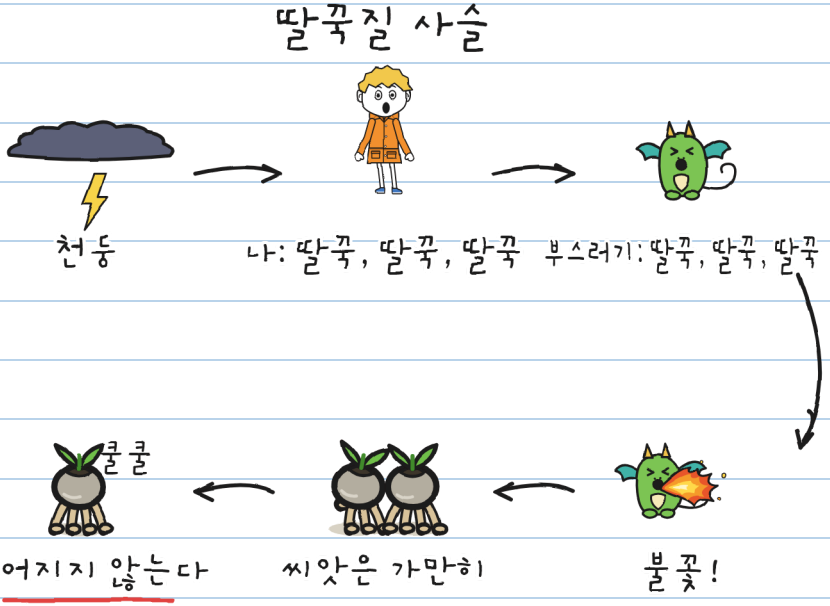
그런데 부스러기는 벌써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무도 못 본 사이에 플로라 아줌마의 발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화단 아래 화분들 사이에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조심조심 끌어당겼다. 부스러기는 네 발로 화분을 꽉 붙잡았다. 베라 아줌마가 말했던 대로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내가 딸꾹질을 할 때마다 온실에서는 부스러기가 불을 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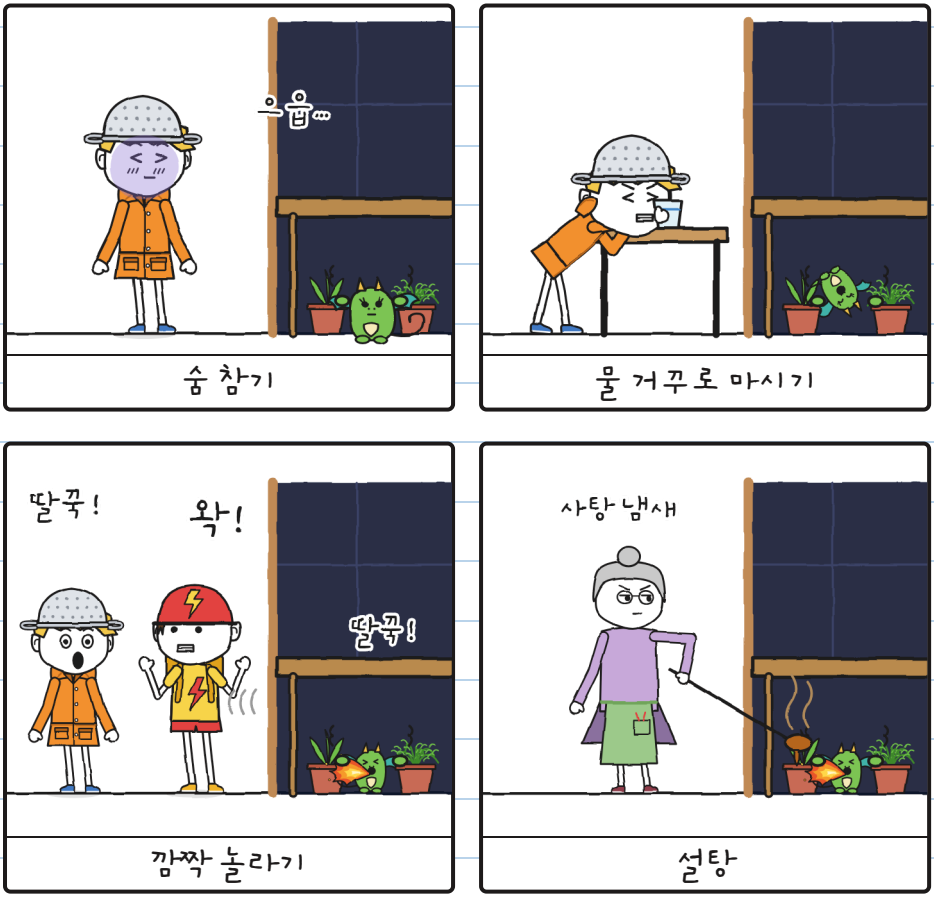
이해하려고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부엌에서는 딸꾹질이 도움이 됐다. 불꽃이 터지면 씨앗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잡을 수 있었다. 온실에서는 아니었다. 3초마다 불꽃이 터지면 씨앗이 심어지는 데 필요한 어둠이 이어지지 않는다.

사슬을 끊어야 해. 제일 끊기 쉬운 부분은 너야. 사랑을 담아. —J.

딸꾹질 멈추는 방법을 다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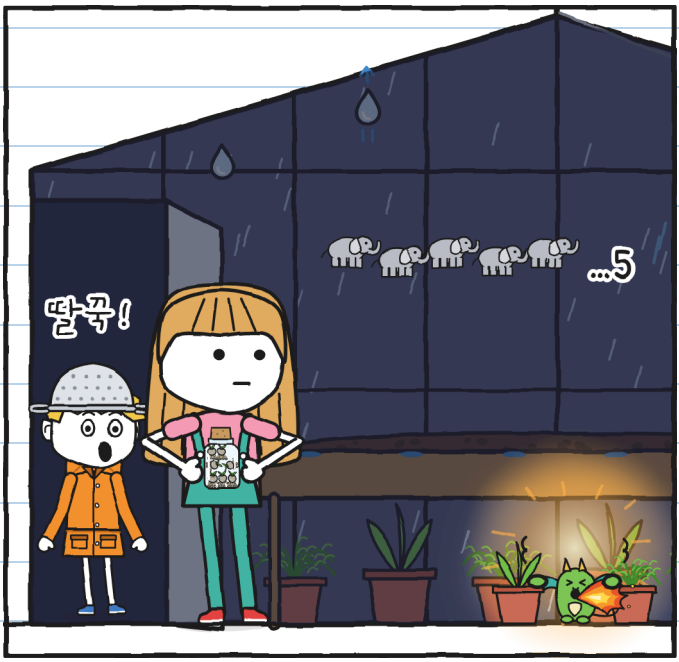


부스러기는 화분을 붙잡은 채 전부 따라 했다.

방법: 여러. 딸꾹질: 많이. —J.

훌리타가 셌다. '코끼리 넷.' '다섯.'
천둥이 울렸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씨앗 일곱 개가 병 속에서 나갈 곳을 찾으며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계속 딸꾹질을 했다.



"열하나까지 세면 어떡해?" 내가 물었다.
"또 돌멩이가 되겠지."
훌리타는 병에서 눈을 떼고 나를 쳐다보았다.

"부스러기는 네 무서움을 따라 하는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그럼 다른 걸 따라 하라고 해." 내가 말했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온실에서 불꽃이 또 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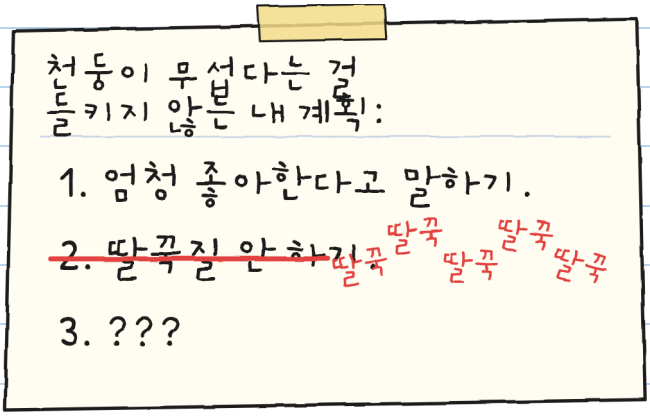
"데리고 나오면?" 내가 물었다.

"꽉 붙잡고 안 나와. 봤잖아."

훌리타가 목소리를 낮췄다.

"먼저 네가 곁에 있어 줘."

나한테는 무서움을 없앨 방법이 없었다. 티 안 나게 하는 계획뿐이었는데, 더는 통하지 않았다:



3번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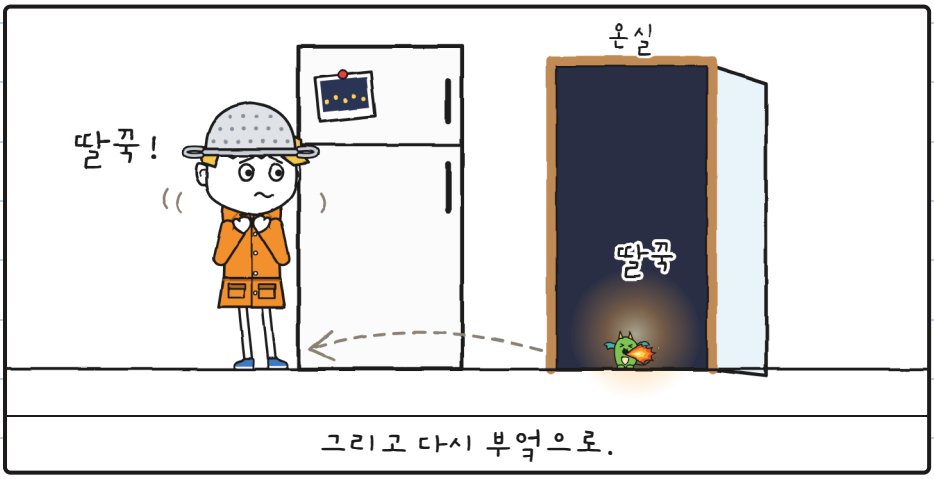
나는 해 보았다. 정말로.



한 발 안으로.



천둥 한 번.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온실은 동네에서 천둥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이다.

문가에서 유리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번개와 번개 사이에 지붕 훨씬 위로 그것들이 보였다. 폭풍 속을 날고 있는 베라 아줌마의 용들이었다. 용들은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을 때 날아오른다. 그래서 베라 아줌마는 우리와 같이 오지 않았다. 폭풍이 치면 집에 남아 용들을 지켜본다.



용들은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가자, 사냥꾼." 토쇼가 말했다.

그 뒤에 나올 농담을 기다렸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체를 벗어 플로라 아줌마에게 주었다. 아줌마는 체를 진짜 헬멧처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체는 번개를 못 막아. 무서움은 가끔 막아 주지. —J.

빗소리가 유리를 두드리는 손가락 천 개 같았다. 나는 화단 밑으로 들어갔다. 부스러기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 나처럼 떨고 있었다.



우르릉!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다. 불꽃이 우리 둘을 환하게 비췄다.

우리는 화단 밑에 숨은 폭풍 사냥꾼 둘이었다.

문가에서 훌리타가 웃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같이 셀게."

제5장

내가 같이 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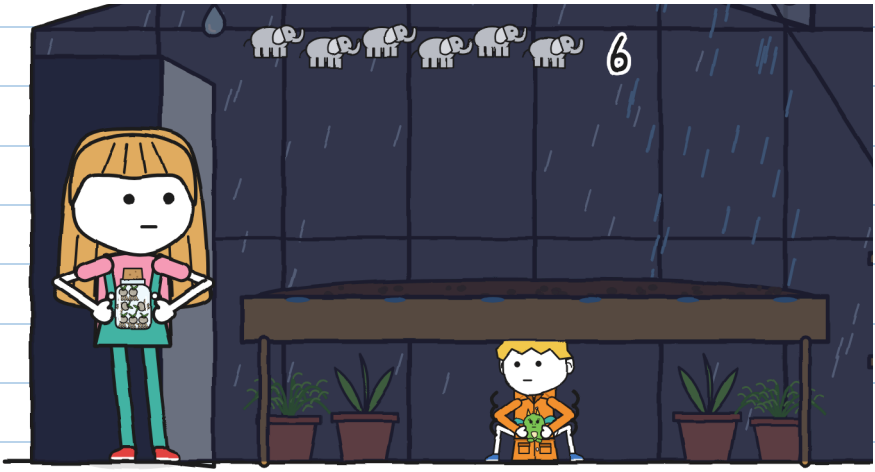
우리는 셌다. 훌리타는 문가에서, 나는 화단 밑에서, 부스러기는 나한테 붙어 떨면서.

번개.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르릉.

"여섯이면 2킬로미터쯤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어. 우리는 계속 안전한 데 있자."



코끼리 여섯 마리를 다 셌다. 무서움은 그대로 있었다. 폭풍이 엄청 좋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이를 악물고 딸꾹질을 참아봐도 마찬가지였다.

부스러기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직 안 해 본 걸 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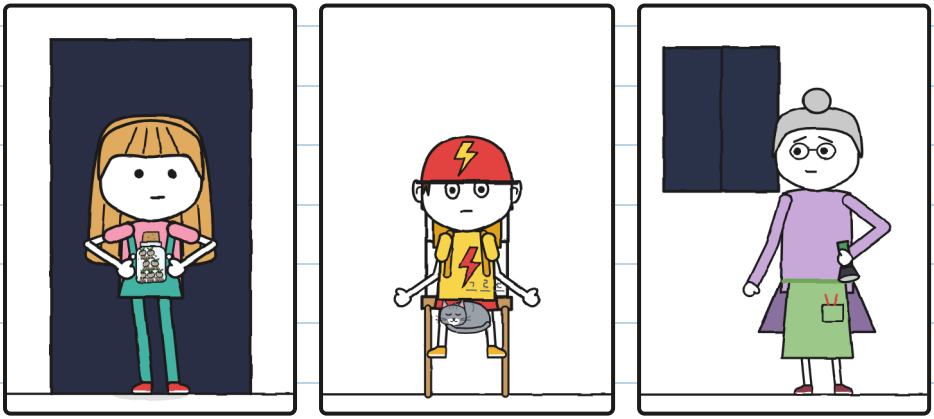


"난 천둥이 무서워."

"알고 있어." 훌리타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6쪽에 그려 놨잖아. 네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난 고양이가 무서워." 토뇨가 말했다. 천둥이 무릎 위에서 자고 있어서 꼼짝도 못 했다.

"난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게 무섭단다."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래서 지난번들에는 병이 오자마자 열었어."



난 널다리가 무서워. 그건 다들 알잖아. —J.

아무도 웃지 않았다. 비는 똑같이 내렸지만 화단 밑에서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부스러기도 그랬다.



번개. 우리는 같이 아홉까지 셌다. 우르릉.

그리고 나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그 천둥에도,
다음 천둥에도.

"지금이야!" 플로라 아줌마가 속삭였다.

훌리타는 발끝으로 걸어 들어가 젖은 흙 위에 병을 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문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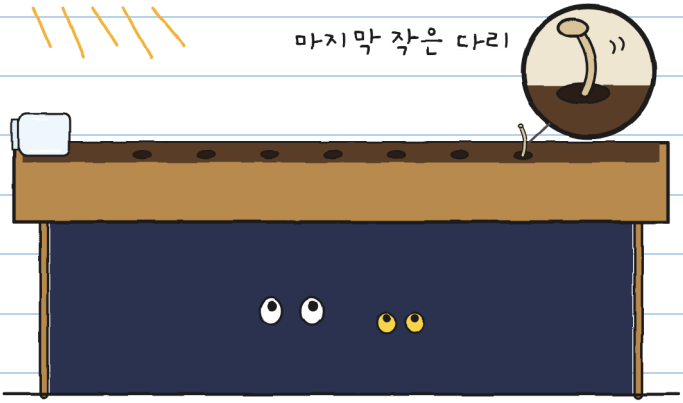


똑, 똑, 똑. 어둠 속에서 병 밖으로 뭔가 나오고 있었다.

아주 멀리서 번개. 우리는 소리 없이 코끼리 열 마리까지 셌다. 우르릉.

열. 마지막으로 셀 수 있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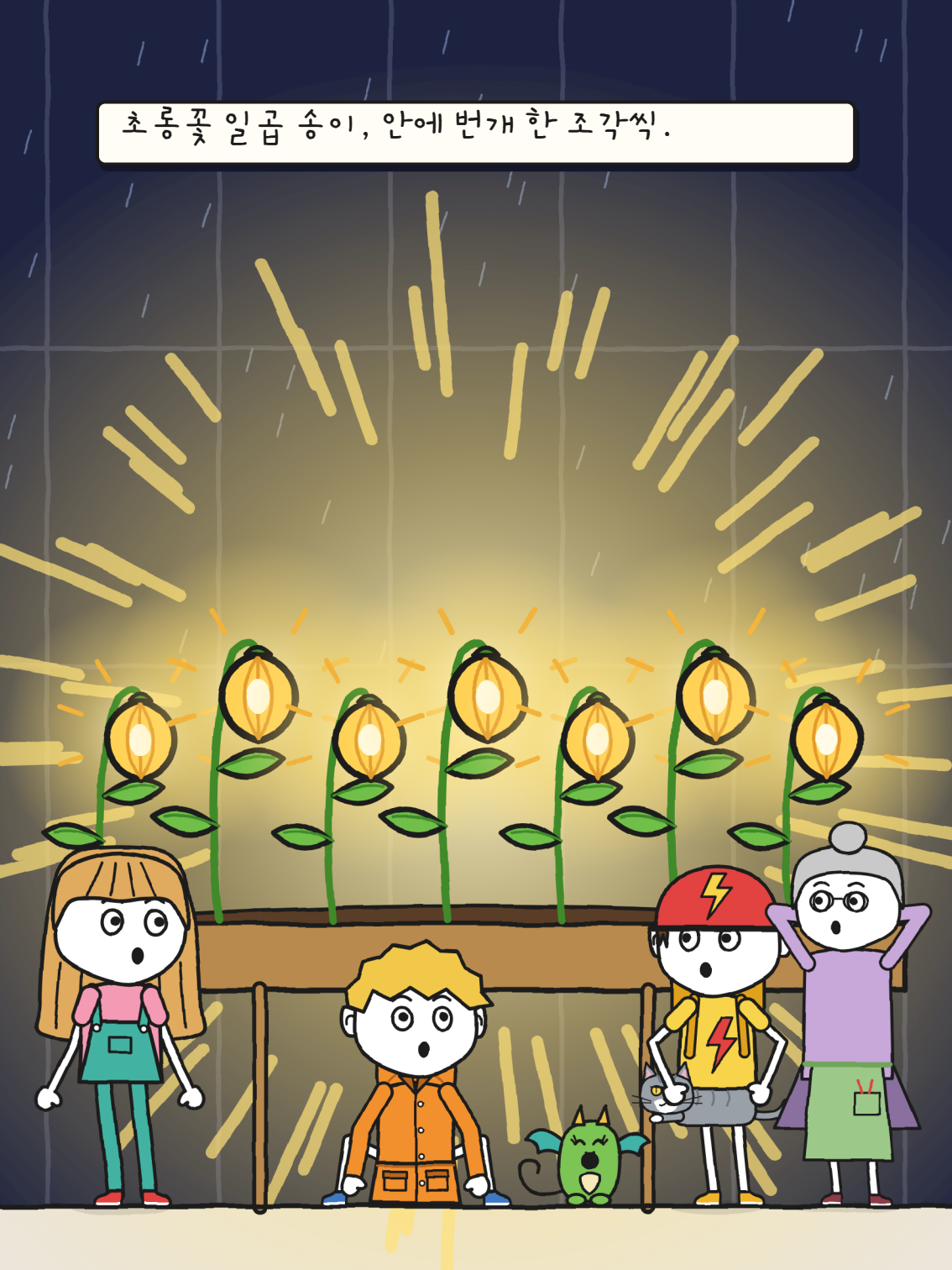
다음 번개에 우리는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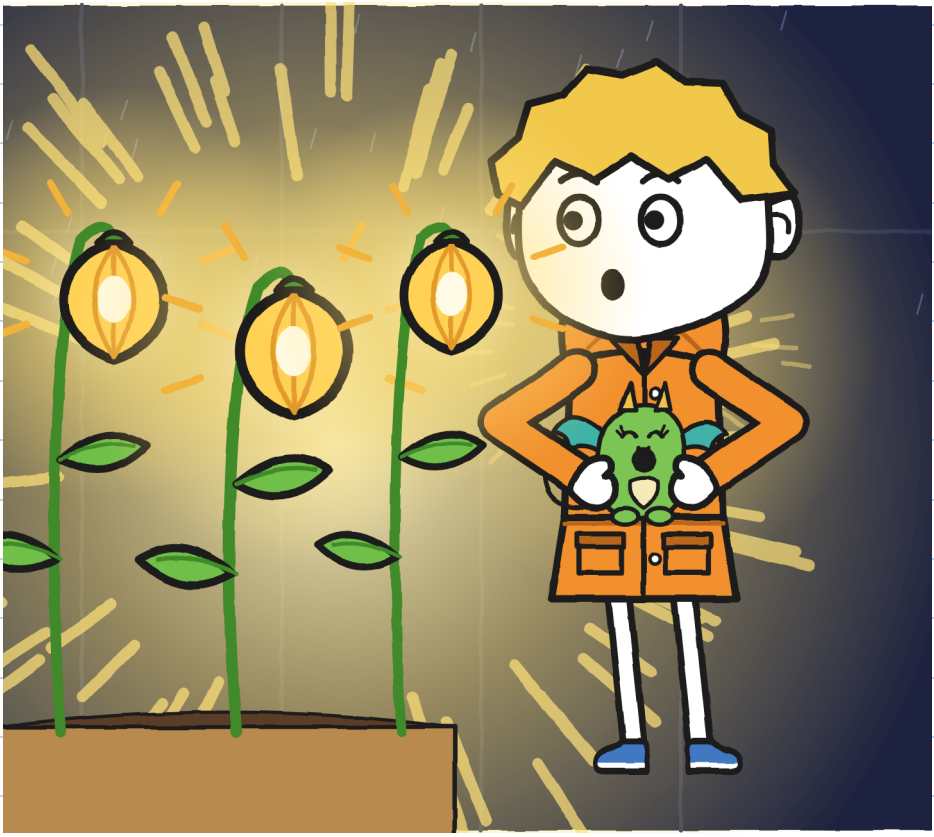
병은 비어 있었다. 흙에는 작은 구멍이 일곱 개, 마지막 구멍에는 아직 작은 다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그러고는 한참 아무 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흙만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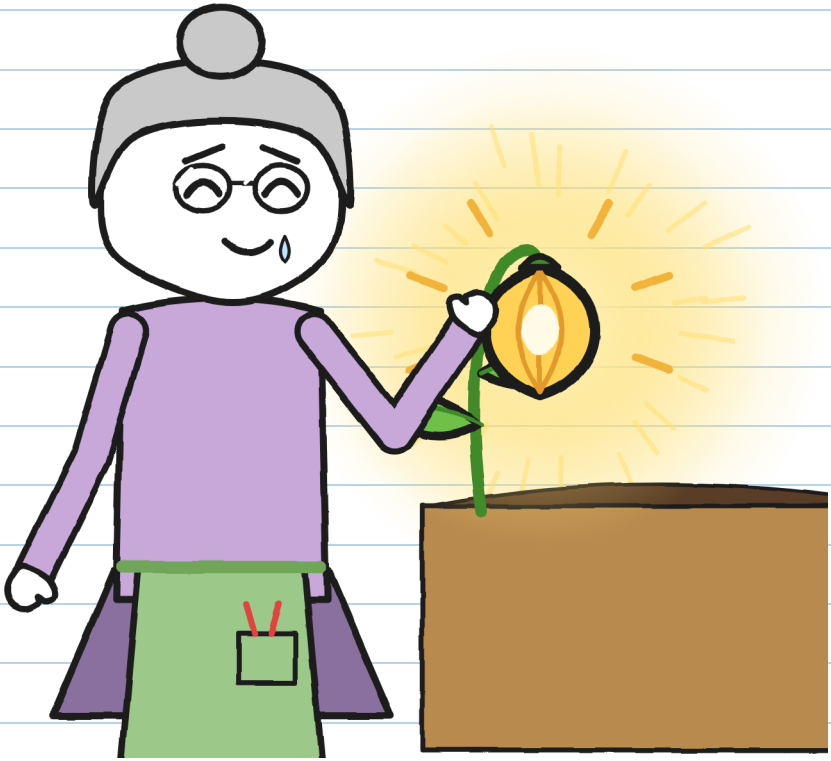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초롱꽃에 불이 켜졌다.


초롱꽃 일곱 송이, 안에 번개 한 조각씩.

부스러기는 딸꾹질을 하지 않았다. 나처럼 입을 떡 벌리고 초롱꽃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무서움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다. 이걸 따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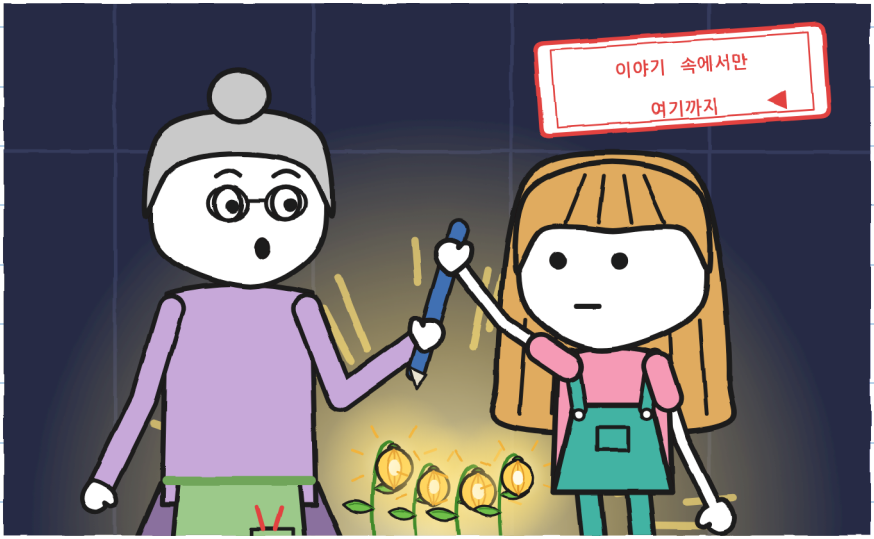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는 한참 말이 없다가 초롱꽃 하나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졌다. 오랫동안 기다린
것을 만지듯이.
"산책로가 이랬단다." 아줌마가 말했다.



나도 하나를 만져 보았다. 부스러기도. 햇볕을 쬔
돌멩이처럼 미지근하게 따뜻했다.

플로라 아줌마는 크랭크를 돌려 비를 멈췄다. 그러고는 볼펜을 꺼냈다.
드디어 서명하려는 참이었다.
훌리타가 손가락 두 개로 막았다.
"아직이에요. 여덟 번째가 남았어요."

훌리타는 초롱꽃 일곱 송이를 바라보았다.
"제가 병을 너무 일찍 열었어요. 찾아야 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상자에서 라벨을 떼어 멜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배달하려면 끝까지 해야 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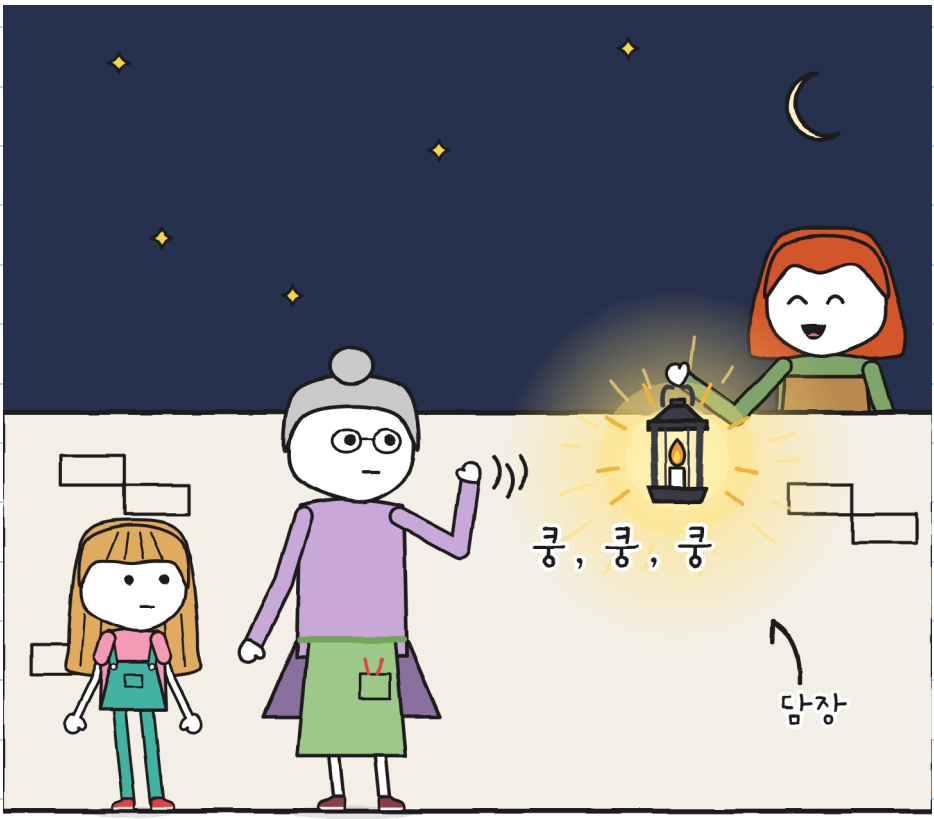
우리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마당은 아직 단혀 있어."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아직은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훌리타가 셀 번개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고, 마지막 천둥이 친 뒤로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이제 비는 오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여덟 번째 씨앗은 밖 어딘가에 어둠 속에 있었다.
제때 흙을 찾지 못했다면 다시 잠들어 돌멩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명이 없으면 해 뜰 때 2번 택배는
선반으로 돌아간다.

"찾으러 가요." 훌리타가 말했다.

플로라 아줌마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담장을 세 번 두드렸다. 베라 아줌마가 말했던 대로, 그 담장은 용의 집 벽이다.



"이번에는 너희끼리만 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가 말했다.

제6장

여덟 번째

우리는 플로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등불 하나, 자전거 한 대와 함께 나갔다. 훌리타는 빈 병과 라벨을 들었고, 나는 부스러기를 비옷 안에 넣고 있었는데 머리만 밖으로 나와 있었다.

우리는 마당과 좁은 길과 운하 가장자리를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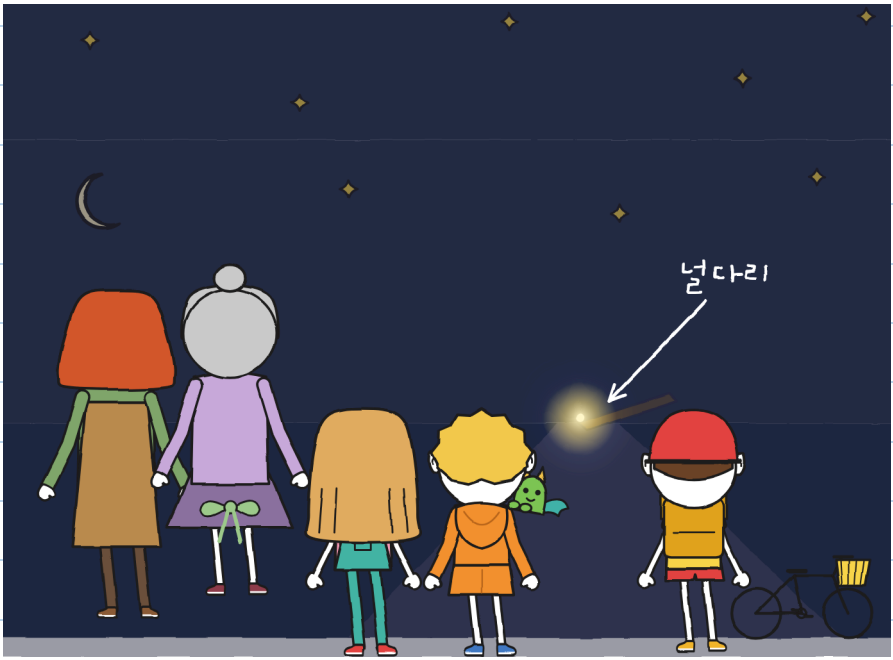


아무것도 없었다.

여덟 번째 씨앗이 잠들었다면 저 돌멩이들 중 아무거나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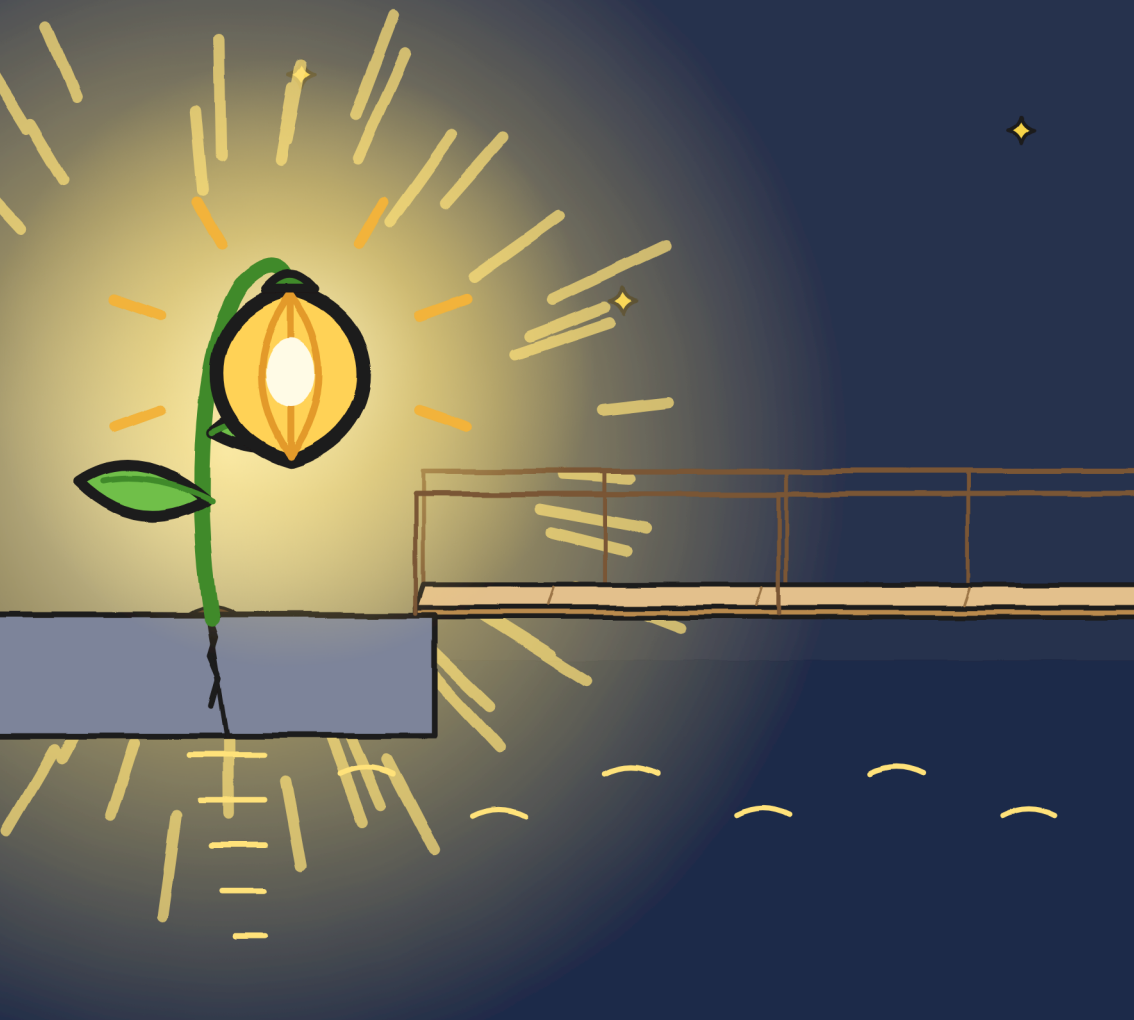
등불이 젖은 돌을 반짝이게 했다.
그때 생각이 났다. 이제 막 싹튼 초롱꽃은 아주 약하게 빛날 것이다. 우리 불빛이 그걸 가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잠깐만요. 전부 꺼요."

토뇨는 자전거를 세웠고, 베라 아줌마는 불꽃을 낮췄고, 플로라 아줌마는 손전등을 껐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산책로 끝에 작은 불빛이 나타났다. 널다리 끝자락이었다.

내 생각에는 빗물이 여덟 번째 씨앗을 좁은 길을 따라 산책로까지 데려갔고, 씨앗은 돌 두 개 사이의 틈에 젖은 흙 한 줌과 함께 머문 것 같다. 널다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 거기서 씨앗은 혼자 싱어졌다. 멀리서는 작은 불빛. 가까이서는 모든 걸 환하게 비추었다.



훌리타는 한참 널다리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있으니 달라 보였다. 더 짧고, 더 넓고, 물보다는 나무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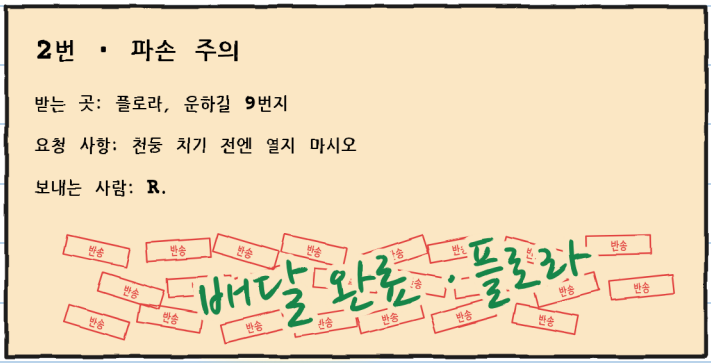
훌리타는 널다리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딱 한 발.
그러고는 다시 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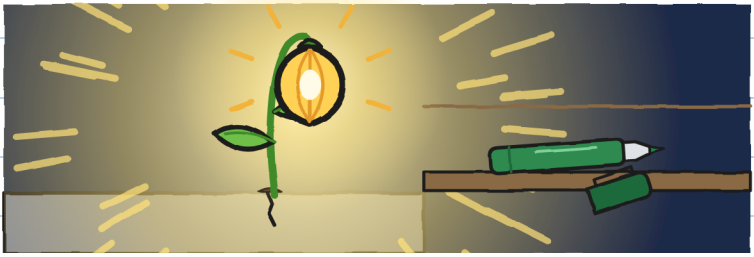


멀리서는 이제 안 무서워. 가까이서도 거의. —J.

"이건 여기 있게 하자." 플로라 아줌마가 말했다. "자리를 스스로 골랐으니까."

휼리타는 라벨과 초록색 매직펜을 건넸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였다. 플로라 아줌마는 여덟 번째 초롱꽃의 불빛 아래서 서명하고 매직펜을 돌려주었다.





집 앞에서 헤어질 때 플로라 아줌마가 체를 나에게 주었다. "가져가렴, 다음 폭풍 때 쓰렴. 그리고 마라에게 이제 때가 됐다고 전해 주렴."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를 둥지에 두고 우리를 승합차에 태워 주었다. 자전거는 뒤에 실었다. 찻길 다리로 갔다. 밤에는 큰 다리를 들어 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니까. 아줌마는 가게 앞에 우리를 내려 주고 용들에게 돌아갔다.

가게는 깜깜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에 없었다.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 있었다.



"벌써 지나갔어?" 마라 아줌마가 물었다.
"한참 전에요." 훌리타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는 담요와 귀마개, 그리고 헬멧 대신
냄비를 썼다.

스물세 번 배달, 폭풍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이해가 됐다.
나는 플로라 아줌마의 말을 전했다. 마라 아줌마는 냄비를
눈썹까지 눌러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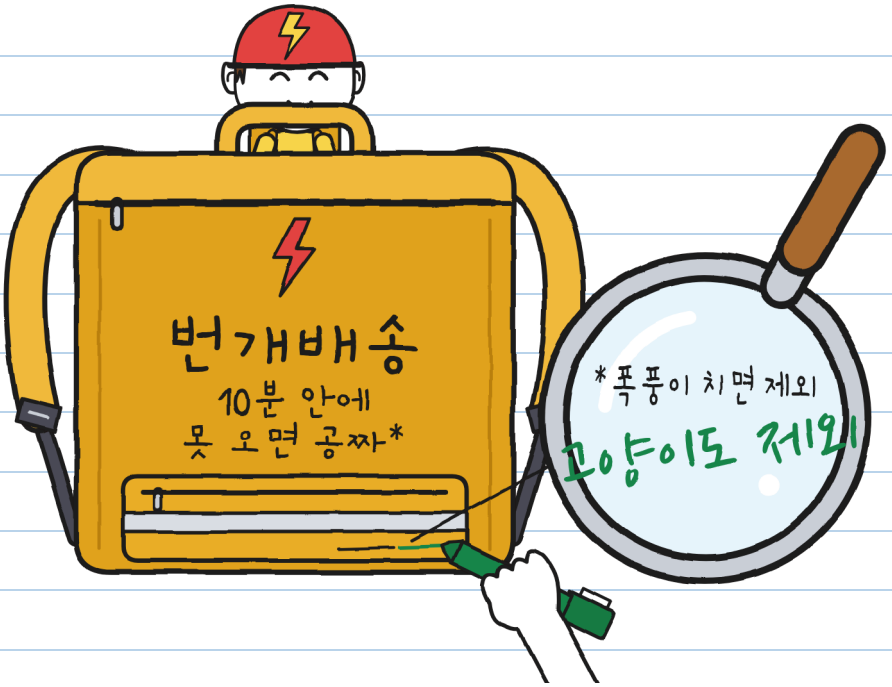
"저도 천둥이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는 담요를 들어 올렸다.



나는 마라 아줌마와 계산대 밑으로 들어갔다. 딱 맞았다.

마라아줌마는 토쇼에게 상자를 뒤집어 의자들 옆에 놓아 주었다.
"네 자리야. 당분간은."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토쇼는 앉아서 훌리타의 매직펜으로 작은 글씨에 두 단어를 덧붙였다: '고양이도 제외'.



이제 작은 글씨가 진실을 말하네. —J.

천둥에 대한 내 계획을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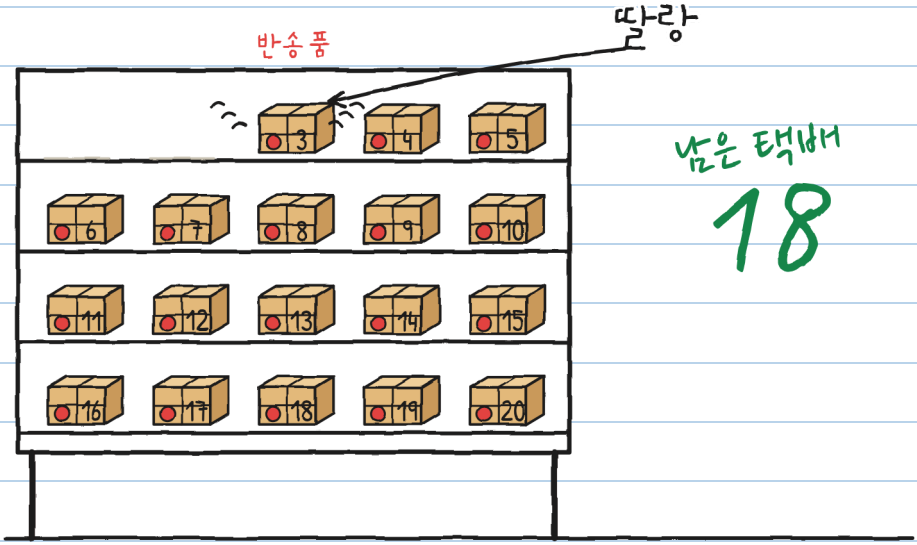
1. 코끼리 세기.
2. 누군가와 함께.
3. 딸꾹질을 해도 괜찮다.

남은 택배

7918



그리고 아무것의 사냥꾼이라고도 하지 마.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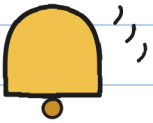


남은 택배
18

그날 밤 집에 가기 전에 돌아온 택배 하나가 딸랑 울렸다.
방울 소리 같았다. 3번 택배였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3번
우리 토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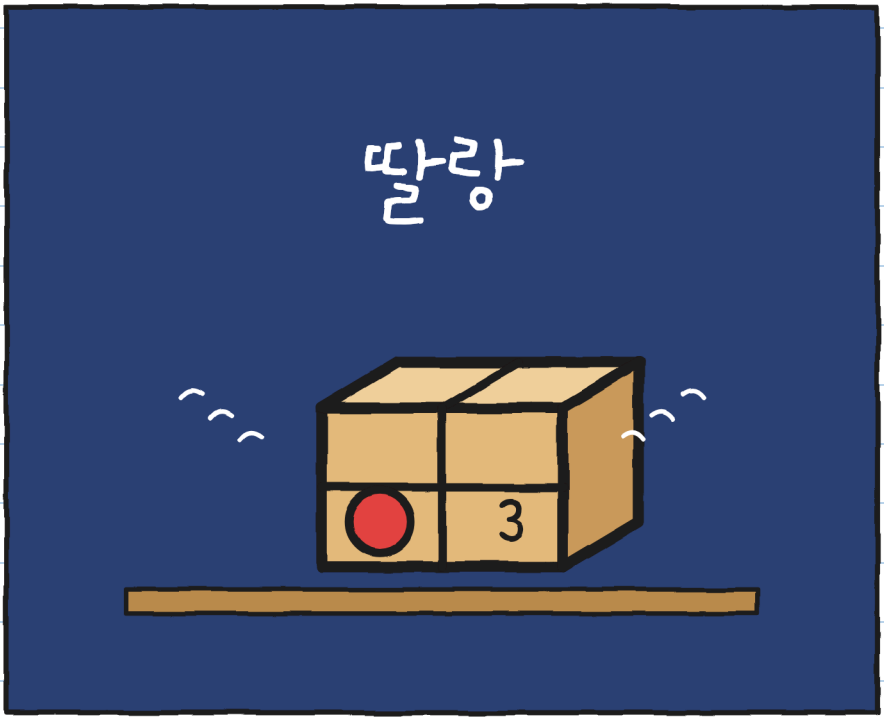


토뇨는 헬멧처럼 빨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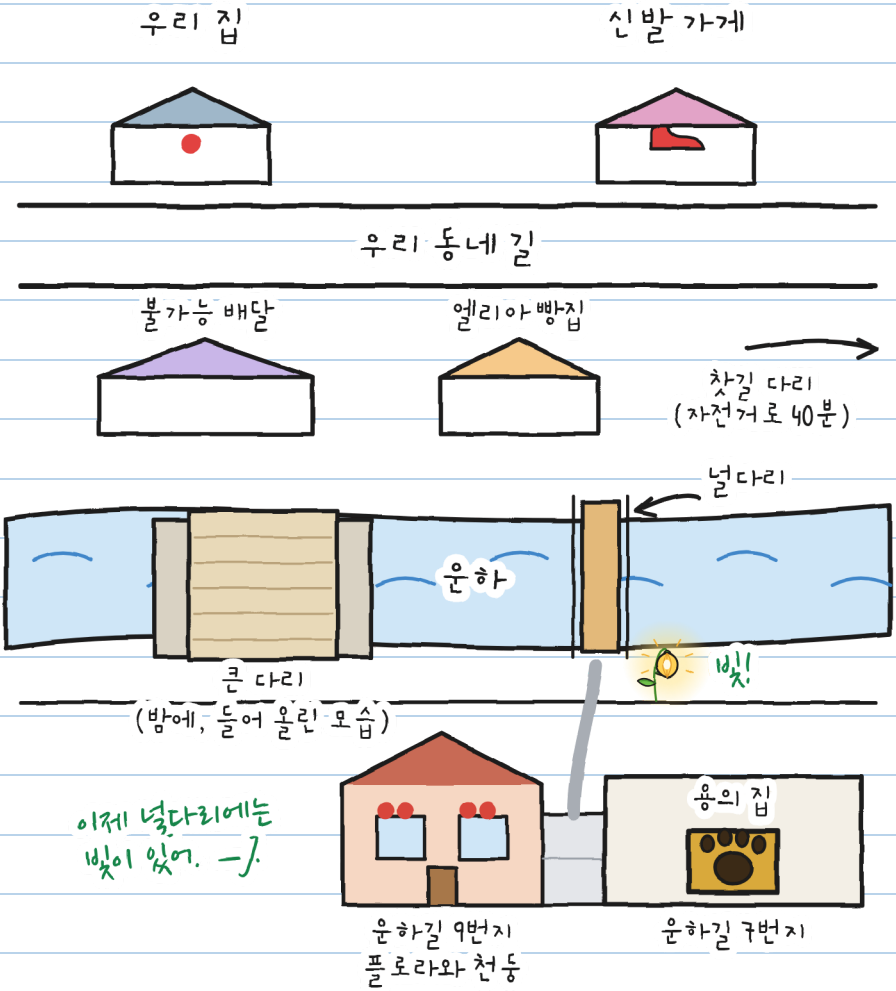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3

(곧 나옵니다)



토끼에게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 —J.

동네 (두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엘리아 빵집
찻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널다리
운하
빛!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이제 널다리에는
빛이 있어. -J.
용의 집
운하길 9번지
플로라와 천둥
운하길 7번지

나한테는 R.의 카드가 하나 있다. 처음 두 단서는 공책 1권에서 나온 것이다. 새 단서를 적었다:

R.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R.

1. 글씨를 아주 못 쓴다(마라).
2. 베라 아줌마는 R.의 이니셜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다.
3. 오래전에 플로라 아줌마와 초롱꽃을 심었다.
4. 늦게라도 약속은 지킨다.
5. 플로라 아줌마의 마법 유리를 만들었다.

6.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단서야. —J.

너는 어떻게 생각해? R.이 누구일 것 같아?

내 생각에 R.은…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홀리타가 일곱 번째 씨앗을 잡아.

사이즈 XS · A1
바닥에 씨앗이 하나 남아 있었다.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S · A2
또 번개가 쳤다. 바닥에는 씨앗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M · B1
다음 번개가 칠 때 씨앗은 하나만 남아 있었고,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L · B2
다시 번개가 쳤을 때 바닥에는 씨앗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홀리타가 그걸 잡았다. 일곱.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진짜 폭풍이 칠 때 해야 할 일

1.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 번개가 벌써 너에게 닿을 수 있어.
2. 어른과 함께 집 안에 있어. 창문, 문, 유리에서 멀리 떨어져. 온실도, 다리도, 나무도, 물도 안돼.
3.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이 지날 때까지 나가지 마.
4. 코끼리를 세면 번개가 가까운 곳에 쳤는지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 하지만 언제 나가도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네 폭풍을 세어 봐

집 안에서: 번개와 천둥 사이에 코끼리를 세어 봐.

번개	코끼리	킬로미터 (3마리에 1)	더 가까울까, 더 멀까?
1	15	5	–
2	9	3	더 가까이